

사진과 감정들

사진으로 발견하는 내 안의 감정들

2020. 03. 09. ~ 2020. 03. 15.

첫 번째 쓰기 사진: 윤철현 작가님



김남열 (함께쓰는 밤 리더) @by_fext

“사진으로 글 쓰는 모임을 하려고요.”

“사진이 어떻게 글이 되죠?”

“해보면 알겠죠”

순서

작가소개 - 사진 & 글 - 작품의도

윤철현 (영어 교사, 사진작가)

안녕하세요.

11년째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 아마추어 작가입니다.

글 쓰는것도 좋아했었고 관심도 많았는데 어느샌가 그런 생각들이 희미해졌네요.

이번 기회에 글쓰기에 대한 제 관심도 예전처럼 다시 살아나길 바라봅니다.

//

첫 번째 쓰기

2020 03 09 ~ 2020 03 15

윤작가 첫 번째 사진 × 함께쓰는 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렌즈는 어떤 성질일까?
순간순간마다 렌즈는 통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겹겹이 쌓여 왜곡시키진 않았을까?
렌즈는 날 보호하려고 했던 걸까?
가두어버린 걸까?
렌즈가 반사시킨 빛은 어떤 색일까?

#자아 #궁금 #반성 #진지 #책임

비눗방울을 크게 불었어.

비눗방울 넘어 어릴적 나의 누이와 가족들이 보인다.

크게 불수록 비눗방울을 금방 터져 사라지겠지만

그저 크게만 불고 싶었던 나의 꿈은 금방 나의 어릴적 추억이 사라지게 만든다...

#비눗방울 #나의꿈 #그리운가족

윤작가 첫 번째 사진 × 이진호n이진호

널 알고난 뒤,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첫사랑 #시각 #연애 #사실라섹수술했음

윤작가 첫 번째 사진 × 천사초향초

너를 통해 그 세상 알게 되었다

여직 보지 못했던 그 세상

봄처럼 다가온 그대

#아름다움 #색안경 #사랑

윤작가 첫 번째 사진 × 정뱅이n김은정

소파에 들러붙어 쉬고싶던 주말
들떠있는 그녀와 마지못해 나선 드라이브
아이처럼 신이 나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노라니
회색빛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피어난다.

그녀의 숨결이 빚어낸 무지개 방울
이 순간을 비눗방울에 담아본다.

#숨결 #비눗방울 #여자말을잘듣자

딱 이만큼의 크기가 좋다.

모든 공기 쏘아내어 만든 방울은 영롱하지 않고,

겨우 생기다 만 방울은 눈길조차 가지 않는다.

딱 이 정도의 오색 빛 내는 비눗방울이 사랑스럽다.

#삶

윤작가 첫 번째 사진 촬영의도

강원도의 폐교된 초등학교가 동네주민들의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공간을 방문했을때 찍은 사진이다. 이 곳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중 하나가 바로 거대한 비누방울 만들기다. 평소 작은 비누 방울만 만들며 놀다가 이렇게 큰 비누방울을 만들면서 노니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사진 촬영 의도는 무지개 빛깔의 큰 비누방울 모양을 화면에 담는거였는데 막상 찍어보니 화면보다 훨씬 더 큰 모양의 비누방울의 모습이 포착됐다. 비누방울의 색감은 맘에 들었으나 프레임을 벗어난 듯 한 여자아이의 모습이 살짝 아쉬웠다. 하지만 비누방울이 만들어진 순간 포착이 잘 된것같아 맘에 든다.

이 날은 비누방울을 만드는 동적인 활동도 있었고, 앉아서 무언가에 집중하게 해주는 정적인 활동도 있어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기억된 하루였다.

윤작가 두 번째 사진 × 함께쓰는 밤



발꼬락 10개...

자꾸 발꼬락을 세어본다.

너의 발꼬락 열개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여 눈물이 난다.

그 작은 발꼬락에 힘을 꼭주어 너의 삶에 어려움이나 기쁜날에도 우뚝서길 기도한다.

#발꼬락 #나의아이 #감사

윤작가 두 번째 사진 × 천사초향초

너와나의 완성체
꿈꿔보지 않았던 미래
탄생의 신비함 속에 기적같은 만남

#남녀 #사랑 #기적 #가족

꿈지락거리는 병아리콩 열 알
한 뼉도 채 되지않는 그 두 발이
마음 놓이게 한다.

열 달을 미처 품지 못하여
남들보다 더 작은 몸으로
힘든 시간 견뎌낸 네게
말해주고 싶다.

내 평생의 자량은 너임을

#평생의자랑 #팔삭둥이 #아빠이제그만자랑해

윤작가 두 번째 사진 촬영의도

산부인과에서 아이 출산 직후 찍은 사진. 인스타그램은 육아스타그램이라고 불릴만큼 아기와 관련 된 다양한 사진들이 많다. 그중에 신생아의 발모양을 하트모양처럼 모은 사진이 개인적으로 맘에 들었는지, 비슷한 느낌의 사진이 나온것 같다. 세상으로 나온지 며칠 되지 않은 아기의 쭈글쭈글한 주름과 발목에 채워진 이름표가 인상적이어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다.

윤작가 세 번째 사진 × 함께쓰는 밤



어찌 되건 만나자던 10년 전 약속. 아이 달린 아빠에게 회상 따위 사치인데, 거짓 출장으로 이곳에 돌아왔다. 짧은 꿈이 우릴 갈랐다. 언제 어디서건 무엇이랄도 될 수 있을 터였지만, 이상에 휩싸여 각자의 길을 걸었다. 후회한다. 아이마저 톱니바퀴의 일부로 느껴지는 요즘이 지옥과 다르게 뭐란 말인가. 눈사람의 삐뚤삐뚤한 얼굴, 기우똥한 몸뚱이처럼 내 멋대로 살아왔데도 지금처럼 허탈하진 않으리란 생각마저 든다. 꼭 어디로 나아가야 했던 걸까? 여기에 머물렀데도 힘들어했을까? 너와 함께한 고생이었다면, 적어도 힘들단 생각은 안 했을 텐데.

#후회 #원망 #슬픔

설렘을 가득안은 채 다가오는 손길에 흘날리던 눈송이가 속절없이 녹아내린다.
눈송이가 차복차복 쌓이는 것을 지켜보다 등글린다.
손바닥의 따스한 온기가 되려 눈덩이를 맨질맨질하고 단단하게 한다.
스스로 누구인지 미처 몰랐던 때 급히 다가온 인연에게 많은 상처를 냈다.
마음이 차갑던 시절, 같이 견뎌주었던 그의 따스한 품은 나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고 싶게 했다.

#마음이차갑던시절 #따스한품 #개과천선

윤작가 세 번째 사진 × 프랭크n한재상

동수야.
너는 짐작했겠지만,
그날 니가 만든 눈사람을 망가뜨린 사람은 나란다.

반과된 눈사람 앞에서의
속내를 알 수 없는 네 표정이
좀처럼 잊히질 않는구나.

나는 알지.
네 표정 뒤에 숨은 상심을.
나는 알지.
그러나 네가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것임을.

동수야.
너는 어찌자고 하나뿐인 친구를
죄책감의 도랑으로 떠밀어버렸다.

수돗가 앞 우뚝 선 눈사람을 향해
호기롭게 발을 내뺐던 그 천방지축은
이제 불품없는 아저씨가 됐다.

동수야.
나를 꾸짖어다오.
내 눈사람을 뭉개버린 심술과 용기는
대체 어디다 팽개쳤냐고
이제라도 나를 꾸짖어다오.

아직도 너는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의 한순간을 위해
눈덩이를 굴리고 있겠지.

내가 망가뜨린 것이
너의 그 희디흰 온정이 아니라
단지 눈사람이길.

내 친구 동수야.
나는 알지.
네 표정 뒤에 숨은 상심을.
나는 알지.
그러나 네가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것임을.

#날라차기

윤작가 세 번째 사진 촬영의도

제천 의림지에서 찍은 눈사람. 뽕뽕 언 호수위에서 놀다보니 어느새 초저녁. 눈이 많이 있으니 눈사람을 안 만들수가 없었다. 어둑어둑해진 시간이라 이쁘게 만들긴 힘들 것 같아 대충 만들다보니 '못난이 눈사람'의 완성. 만약 낮시간대에 눈사람을 촬영했다면 햇빛 때문에 노출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다행히 햇빛이 약해진 시간대여서 노출도 적절했고 전체적인 색감이 블랙 앤 화이트로 표현되어 맘에 듬.

윤작가 네 번째 사진 × 함께쓰는 밤



바람이 분다. 스쳐가는 바람에 생각들이 섞여 날아갔다. 획 뒤를 돌아보아도 이미 바람에 섞여 날아간 생각들이 내손에 잡힐 리 없었다. 머릿속에 고여있을땐 짓눌릴 것처럼 무거웠던 생각들이 바람과 함께 날아가더니 더없이 자유로워보였다. 덜그럭덜그럭 조금 전까진 귀에 거슬리던 물통소리에 발걸음을 맞춰 걷기 시작했다.

질질 끌리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후회 #기쁨 #결국은물집

윤작가 네 번째 사진 × 복 이끄미n최광복

나란히 걷던 그 길
파란 하늘과
스쳐가는 바람은 여전한데
너가 없다.

#공허함

나는 안다.

그 곳에 다다르더라도

꽃과 열매라고는 1도 없는 앙상한 나무뿐이라는 것을.

결국엔 별 것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림에도 불구하고,

흙길을 밟는 감촉과 콧구멍에 스미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당신.

그 곳으로 가는 과정이 좋아서

나는 걷는다.

#파워워킹

윤작가 네 번째 사진 × 얼빡n권대안

멈춘 세상

멈춘 시선

한없이 바라본다.

문득 눈을 통해 본 세상, 눈 속엔 내가 있고, 나는 이 세상임을 느낀다.

#wearetheone

윤작가 네 번째 사진 × 정뱅이n김은정

파아란 하늘에 누워
잎새처럼 나부끼던 당신의 손이
돌아보지 않는 등을 향해
조심히 올라가라 뒤따르던 당신의 음성이
자못 그리워 뒤돌아본다
당신 위한 배웅은 없었던 그 길목을

#배웅 #엄마 #있을때잘해

윤작가 네 번째 사진 촬영의도

겨울의 보성 녹차 밭. 녹차밭은 역시 한여름의 녹차밭이 유명하다. 수년 전 겨울여행 삼아 찾은 보성의 녹차밭은 한 여름의 그것과는 느낌이 많이 달랐다.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지만 남도의 겨울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겨울과는 온도 또한 달랐다. 초봄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따듯했다. 원래는 흙이였을 보행로가 따듯한 기온에 눈이 녹아 진흙길이 되어 이날 녹차밭 구경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이왕 보성 녹차밭에 왔는데 녹차밭 사진 하나 남기고 가야지 하는 욕심에 진흙길에 삼각대를 세우고 촬영 성공. 사진상으로 녹차밭인지는 분간하기 어렵지만 언덕 너머의 파란 하늘이 녹차밭처럼 보이는 곳과 대비되는 것이 맘에 든다. 진흙길에 고생을 한 터라 다시는 녹차밭에 올 생각을 안 할법도 하지만, 다시 집에서 사진을 감상하며 다음에는 한 여름 초록색이 가득한 녹차밭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진과 감정들

사진으로 발견하는 내 안의 감정들

